

# 철도요금 상반기 동결...공공요금 인상 자제 지자체 혜택

## 정부 '물가·민생경제 대응 방향' 발표

정부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 횟수를 늘리고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도 올해 내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을 동결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지급과 같은 인센티브를 늘리고,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 대상 생계비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알뜰교통카드 한도 60회로·대중교통 소득공제 80%=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에는 5% 안팎을 기록했으나 향후 4%대, 3%대로 서서히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버스·택시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 확산 등이 물가를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

## 알뜰카드 지원 60회로 확대...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 확대 국가유공자·예술인 등 생활안정자금...저소득층 생계비 대출

단했다.

정부는 서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때 걸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월 44회 한도 안에서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데, 정부는 이 한도를 60회까지 늘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은 적립단가도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한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내내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려 적용한다. 애초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는 올해 상반기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하

반기에도 계속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는 올해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80%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

◇도로·철도요금 상반기 동결...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인상 자제=정부는 고속도로·철도·우편·광역상수도 등 중앙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방침을 이미 확정했다.

여기에 더해 버스·지하철·택시·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 예산은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특별교부세는 11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식이다.

또 지자체가 지방 공기업 원가 절감 등 자구노력으로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 시기를 미루거나 분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44개 지자체가 공공요금 동결·이연을 확정했고 10개 지자체가 추가로 동결·이연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물가 안정을 위해 고등어·명태·오징어 등 수산물은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한우·양파·명태 등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주요 식품 원료 할당관세 추가 적용 검토, 정부 수입 공·팔 가격의 상반기 동결 등을 통해 가공식품 가격 안정도 추진한다.

◇학자금 대출자 생활비 대출 확대. 저소득 근로자 연 생계비 대출=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는 1년 연장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도 상반기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는 생활비 대출을 1인당

연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늘린다.

직업훈련을 받는 실업자, 저소득 근로자, 임계불 불 피해 근로자 생계비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저소득 예술인에는 생활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출근로자 지원금, 긴급복지 연료비, 영아 기저귀·분유 바우처 등 지원도 늘린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신보 보증 한도를 42조원에서 44조원으로 올린다.

소상공인진흥기금 정책자금 3조원은 상반기 78.3%를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필수 생계비 사업, 민생안정 사업 집행 상황을 관계부처 집행점검단,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이·전용, 4조6천억원 예비비, 기금 변경 등을 통해 보완책을 찾겠다고도 덧붙였다. /박기용 기자 pboxer@연합뉴스

# “기업하기 좋은 광주 만들기 힘 모으겠다”

## 양진석 호원 회장, 광주경영자총협회 제17대 회장 취임 맞춤형 회원서비스·직무역량 강화·일자리사업 확대 등

“지역 기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경제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진석(사진) 호원회장이 15일 광주경영자총협회 제1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오전 열린 광주경총 '2023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임명식'에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양 회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사회와 지역 경제 발전에 헌신한 김봉길 회장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선대 회장의 훌륭한 업적과 성과를 이어가야 하는 부담감 탓에 걱정이 앞서 는 것도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앞으로 회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회원사 간 협업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생각이다”며 “우리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모두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양 회장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주요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광주시를 비롯해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역노동계와도 노사관계 안정과 협력을 통해 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동행해나 갈 예정이다.

양 회장은 “이러한 사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주경총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회원들의 유기적인 소통과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광주경총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회원을 확충하기 위해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원사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대 정부 건의를 확대하겠다”며 “이밖에 맞춤형 회원 서비스 제공과 회원사 직무역량 강화, 일자리사

업 확대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지 않았다.

양 회장은 “지역사회와 경제발전을 위해 창조와 도전의 기업가정신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며 “광주경총이 지역 기업인에게 꼭 필요한 단체이자 협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민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광주 대표 경제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16대 회장인 김봉길 회장은 참석 회원 만장일치로 명예 회장에 추대됐다. 또 제24회 노사협력대상은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수상했으며, 노사협력유공자로 김용구(현대하이텍 대표이사(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김희준(기아 오토랜드 광주 상무(광주시장 표창)), 차상석(금호익스프레스(차장(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표창)), 한동철(주아이코디 전무(광주경총회장 표창)) 등 4명이 받았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5G 중간 요금제 나온다 데이터 40~100GB 선택권 확대

올해 상반기 데이터 용량 40~100GB(기가바이트) 구간 내 5G 중간 요금제가 추가로 나온다.

정부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에 가입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5G 요금제 구간 다양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40~100GB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내 추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고, 기간 선택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5G 일반 요금제보다 가격이 저렴한 시니어 요금제도 출시하고, 연령대 별로 혜택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 LG유플러스는 5G 시니어 요금제를 운용 중이며, SK텔레콤과 KT는 다음 달 중 관련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 5G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취약 계층 대상 통신 요금 감면제도 홍보를 강화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전남도-금융권 전국 첫 '중기 버팀목 특별융자' 협약

## 광주은행·농협, 500억 지원 신보 보증수수료 20% 인하 등

전남도는 15일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융자 지원 업무협약을 하고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지원 협약'은 고금리 속에서 자금 부담을 겪는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금융권이 손을 맞잡은 전국 최초 선도적 금융협력모델이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정재현 NH농협은행 전남본부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김충배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각 50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수수료 20% 인하와 보증 비율을 95%까지 확대한 특례보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지원한다.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지원 규모는 1000억원(NH농협은행 500억원·광주은행 500억원)으로 2023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기업당 3억원 한도로 2년간 연 4% 이자를 전남도가 3%, 금융기관이 1% 지원한다.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김영록(왼쪽) 전남도지사와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규 자금 및 대환대출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시중 평균 대출금리 6~8% 대비 최대 4% 감면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3억원 대출 시 기업당 연간 120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지난 1월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인자로나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운영자금 3800억원과 공장 증개축, 기계설비 구입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시설자금 7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삼성전자-GIST, 채용 연계 과정 협력

### '지능형 모터' 개발 인재 육성

삼성전자는 15일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채용연계형 양성 과정인 '지능형 모터 트랙' 신설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이무형 부사장과 GIST 박지용 기획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지능형 모터 트랙' 신설은 차세대 가전 개발에 특화된 연구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 차원의 우수 인재 양성에도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지능형 모터 트랙'은 석사 과정으로 운영되며, 삼성전자와 GIST는 올해부터 매년 15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모터는 가전 제품의 에너지효율 제고와 내구성

강화에 핵심적인 기술로, '지능형 모터 트랙'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모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기계 분야의 맞춤형 커리큘럼을 통해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재학 기간 동안 등록금과 학비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며, 졸업 후 삼성전자에 입사하게 된다. 또 삼성전자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 해외 지명 학회 참가 등 다양한 체험 기회도 제공받는다.

이무형 부사장은 "모터 기술을 선도할 인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광주과학기술원과 특화 인재 양성 과정을 설립하기로 했다"며 "가전 제품의 혁신을 만들어갈 모터 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학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 임곡농협 '종합업적 평가' 전국 1위

### 상호금융예수금 1000억·상호금융대출 700억 달성 등 급성장

광주 임곡농협(조합장 기재만)이 농협중앙회가 실시하는 2022년 농·축협 종합업적 평가에서 농촌형 농협 평가그룹에서 1위를 달성했다.

임곡농협은 1970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최우수 농협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농·축협 종합업적평가기는 농협중앙회가 전국 1100여 개 농·축협을 경제사업, 신용사업, 교육지원사업 등 그룹으로 나눠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가장 권위있는 평가로 꼽힌다.

임곡농협은 지난해 2022년 상반기 종합업적평가 우수농협, 9월 종합업적 1위 달성 우수농협에 선정됐으며 상호금융예수금 1000억 원 및 상호금융대출금 700억 원을 달성하는 등 신용사업 전반에 걸쳐 크게 성장했다.

또 경제사업 부문에서 친환경 배와 찰벼 등 농산물 출하 물량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시설하우스 화재예방 전기 안전점검 및 내부조직장 교육 등을 통해 조합원 교육 및 지도사업 활성화에도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됐다.

기재만 조합장은 "이번 종합업적평가 농촌형 농협 평가그룹별 1위 달성은 조합원들의 많은 이용과 임직원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조합원 실익 중심의 경영을 통해 농업인과 농협이 함께 성장하는 임곡농협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대우에이텍, 미래차 특허 집중...경쟁력 키운다

### '시트 조작 무선 전력전송시스템' 등 다수 획득

자동차 시트 전문 제조기업 대우에이텍은 다양한 기술 특허를 획득하며 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친환경, 자율주행 등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미래차 및 사용자 경험(UX)과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이를 통한 특허 출원·등록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선 대우에이텍은 미래차 산업으로 유연하게 전

환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인포메이션+엔터테인먼트) 사업과 연계한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대우에이텍은 지난해 10월 차량용 시트의 자동 조작을 무선으로 가능하게 하는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의 국내 특허를 획득했다. 해당 특허는 자율주행 시대를 앞두고 사용자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실내 공간을 유연하게 변형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이다.

이외에도 차량 내 전자제품 등의 편의 장치를 소비자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도록 돕는 '차량용 실내 커스터마이즈 플랫폼 장치' 등 미래차 관련 특허를 출원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 사용자 경험(UX) 관점에서 고객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도 개발해 상용화했다.

'차량용 시트장치' 특허는 차량 내 뒷좌석 시트를 손쉽게 수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시트 하단에 슬라임 레일을 추가해 작은 힘으로도 시트를 쉽게 수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기술은 국내 및 미국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이밖에 준중형급 SUV 뒷좌석 시트의 등받이를 앞, 뒤로 기울일 수 있게 하는 '차량용 시트 백프레임' 특허도 획득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27.90(-37.74)
↓ 코스닥	765.46(-14.12)
↑ 금리(국고채 3년)	3.502(+0.073)
↑ 환율(USD)	1282.20(+12.80)